

# PDP 증설 “LG전자-삼성SDI 맞짱”

LG전자, 2006년 상반기 월 35만대로 ... 삼성SDI는 2005년 31만대

대형 TV 시장에서 LCD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패널(PDP) 모듈기업들이 2006년 수요 증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증산체제에 돌입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과 카타르 아시안게임 등으로 대형 PDP TV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 증설에 나선 것이다.

LG전자는 9월부터 4라인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말까지 모듈 월 31만대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4라인은 2004년 5월부터 6600억원을 투입했으며 세계 최초로 6면취 공법(1장 원판에서 유리기관 6장을 잘라낼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 월 12만대 생산이 가능하다. 또 2006년 상반기에 4라인 공법을 6면취에서 8면취로 개선하면 생산능력이 4만대 더 늘어난다.

현재 월 19만대인 생산능력이 2005년 말 31만대로 늘어나고 2006년 상반기에는 35만대까지 확대돼 월 생산능력이 세계 1위인 삼성SDI를 제치게 된다.

삼성SDI도 2005년 1월 3라인 가동으로 세계 최대인 월 25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3라인 생산효율을 높여 2005년 말 최대 31만대 생산능력을 갖추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라인 4면취 공법을 6면취로 개선하며,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4라인 증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tsushita전기도 10월부터 일본 소재 3라인을 본격 가동해 생산능력을 29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 PDP 시장을 3분하고 있는 3대 메이커가 모두 PDP 모듈 생산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2006년 PDP TV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고나련기업들은 보통 대형 TV 수요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몰리는 짝수 해에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에 걸쳐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도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01>